

## -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-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아산시 입장

2024. 2. 27.(화)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춘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“소수의 참견이 아닌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” 에 대한 아산시 입장입니다.

- 이춘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첫째, “전문위원의 선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,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시민들의 참여자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” 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.

### 시 입장

- 참여자치위원회는 시민 120명, 전문가 72명,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27명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  - 시민위원은 생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개선위한 의견을 내주시고, 전문가 위원은 시민의 의견에 전문가적 자문을 더해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.
  - 특별한 조건없이, 누구나, 희망한다면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위원으로 선정되는 것과는 달리, 전문가 위원은 관련 부서, 관내 대학과 기관 등에서 합당한 인사를 추천받아 전문가적 경력, 인적 네트워크, 활동 범위 등 다각적 관점에서 두루 살펴 최적의 인물을 위촉하고자 하였습니다.
- 둘째, 이춘호 의원은 “왜 더욱 많은 시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미 많은 시정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책특별보좌관을 참여자치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셨는지 묻고 싶다 ” 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. 이에 대한 아산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### 시 입장

- 아산시는 중소도시 지역의 한계를 넘어 아산을 ‘대한민국 최고 도시’로 만들고자 전국의 각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전문가들을 정책특별보좌관(무보수 명예직)으로 모시고 있습니다.

-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여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으며, 이 중 정책특보를 포함한 전문가 위원들은 시민의 시정 제안에 전문가적 지원을 하면서 시민 위원과 상호·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- 현재, 전체 위원 217명 중 정책특보 8명이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전체 인원 대비 3.6%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
- 셋째, 이춘호 의원은 “시민의 목소리를 참견하며 소수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참견자치를 하기 위함인지 의문이 든다” 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“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, 그 힘을 잘못 사용하면 오용이 된다” 는 문장으로 발언을 마쳤습니다. 이에 대한 아산시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.

#### 시 입장

- 참여자치위원회의 시민위원들이 위원의 자리를 이용해 권위를 휘두르거나 이익을 바라고자 위원회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.
  - 정책특별보좌관을 포함한 전문가 위원단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.
  - 이 분들은 다른 자리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음에도 시민위원들과 함께 원탁에서 똑같은 자격으로 머리를 맞대고, 함께 아산의 발전을 고민하고 논하고 있습니다.
  - 도리어, 보수도 없고 특별한 ‘힘’이 없는 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역할을 수락하여 본인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전문가적 지식과 재능 봉사를 하고 계신 점에 아산시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
  - 끝으로, 행여 이춘호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만에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칩니다.
- ※ 5분 자유발언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담당부서	기획예산과	과장	김만섭(041-540-2034)
		정책기획팀장	심흥수(041-540-2903)